

시드니, 동북부 해안 주요 거점 잇는 보행로 조성 계획 발표

<https://www.bonditomanly.com/>

<https://news.cityofsydney.nsw.gov.au/articles/stepping-out-bondi-to-manly>

<https://www.smh.com.au/national/nsw/sydney-s-new-80km-walk-to-be-most-spectacular-in-the-world-20181125-p50i7z.html>

시드니의 '본다이-맨리 보행로 조성 프로젝트(Bondi to Manly Walk)'의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. 본다이-맨리 보행로 조성 프로젝트는 시드니에 위치한 본다이비치(Bondi)와 맨리비치(Manly Beach) 사이에 일종의 '둘레길'을 조성하는 사업이다. 시드니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코스를 통과하는 지역 6개 카운슬,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보행로는 본다이비치부터 맨리비치까지 약 80km 길이로 조성된다. 주요 구간으로는 본다이비치에서 출발하여 왓슨스베이(Watsons Bay)와 달링포인트(Darling Point), 시드니 중심업무지구(CBD), 뉴트럴베이(Neutral Bay)와 모스만(Mosman), 발골라하이츠(Balgowlah Heights), 맨리비치를 지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, 각 지역의 사정에 따라 세부 코스를 조율한다는 계획이다.

특히 코스를 따라 걸으며 도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명소와 시드니의 랜드마크를 만날 수 있도록 조성된다. ▲아서 필립(Arthur Phillip) 선장의 첫 상륙지로 알려진 캠프코브(Camp Cove)와 ▲혼비등대(Hornby Lighthouse)가 위치한 사우스헤드(South Head), ▲도시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오페라하우스와 하버브리지, ▲호주 원주민 문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피셔베이(Fisher Bay)와 샌디베이(Sandy Bay) 구간 등을 도보 여행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된다.

시드니는 새로 조성될 보행로가 세계적인 산책로이자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, 시와 프로젝트 홈페이지를 통해 코스의 주요 구간과 지점, 추천 코스와 소요 시간 등을 안내하고 있다.



본다이-맨리 보행로 조성 프로젝트 계획